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8차 정기
일시	18. 02. 11 11 : 0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2/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	○	○	○	○	○	○	○		○	○	○	○

□ 보고 안건

1. 건물별 불법 카메라 전수조사 날짜 배분 확정

: 마지막 업로드 본으로 수정 완료. 해당되는 일시에 총학생회 일상사업국장에게 기기 사용법 숙지 후 수령 요망.

2. 리더스포럼 피드백 전달

: 논의내용 전달 완료

3. 수강신청 컴퓨터실 개방

: 흡수 수강신청 관련 컴퓨터실 개방 실시(2월 12일). 13일 진행 예정.

□ 논의 안건

1. 본교 동아리 내 성폭행 사건 성명서 피드백

: 2차 가해와 관련한 내용이 아직 확실하지 않음. 성명서로 인해 재차 피해발생의 우려 있음. 매뉴얼을 확실히 하고 예방 교육을 더욱 확실히 진행해야 함. 추후 사건 예방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 유사 사건 등에 대한 학생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공동체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 1차 가해에 대한 대응이 확실했다면 이보다 나은 상황이었을 것. 인권센터와 성평등위원회 등에 성명서의 내용과 배포시기에 대한 자문 필요.

: 피드백 요망.

2. 총장 선출제

-자연과학대학: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 총장선출방식 변경.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하는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서 후보 선정, 학내 구성원 투표. 투표 점수와 총추위 평가점수 합산하여 선출. 최근 대학가 총장 선출방법 추세가 직선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 역시 그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구체적인 논의 필요. 지금의 임명제는 대학이 사회의 것이라는 의견 역시 반영되어있지 않음. 개방이사가 현재 11명 중 2명. 개방이사 늘리자는 것도 위로 올라가지 않음. 경희대는 중앙대와 비슷한 완전 임명제이나 이후 교수들이 신임투표를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약학대학: 50년 미군정을 시작으로 대통령, 이사회, 군부 개입 직선 등 다양한 총장 선출 주체가 있었

음. 87년 직선제 이후 교내파벌 형성, 부패 등의 여러 부작용으로 사라진 대학이 많음. 현재 다시 직선제를 시도하는 대학 많아짐. 대학의 주체가 법인이나 학내구성원이나를 넘어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인식이 성장. 학내 구성원이 총장에 큰 영향을 받기는 하나 대학이 학내 구성원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개방이사제 또는 해외의 대학에서 지역 인사 등이 총장 선출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국립대는 MB정부시절 정부재정사업 수주 선정기준에 영향을 받아 직선제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 현 정부는 관련한 사안에 총장선출제도가 가지는 영향이 미미하며 대학 자치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이라는 평. 이화여대의 경우 동문투표권을 넣었다가 내부 조율을 통해 빼는 등, 각 대학마다 다양한 형태의 총장 선출제를 가지고 있음.

-사회과학대학: 이사회의 독재, 법인화로 인해 학문단위를 금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 또한 총장 선출제 논의에 있어서 학내 민주주의 회복의 기초를 가져가야 함. 그동안 학교는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가려 했으나 구성원을 섬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음. 학생 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통폐합 등 학생 피해 발생. 다양한 구성원과 의견을 교류해야 하며 그것이 투표권으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삼자협의체를 비롯, 현재 학교의 소통 태도 매우 소극적. 직선제가 대학가에 이슈가 되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함. 법인의 폐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도 필요.

-공과대학: 백주년 이후를 생각했을 때, 대학의 소통 태도 등이 총장 선출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함.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함. 학내 경쟁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학생사회는 지역사회나 학내구성원의 목소리가 총장단에게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인문대학: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는 자체가 주는 의미가 커 보임.

*총장 선출제를 논의하는 자료 공유 방 개설. 정보와 출처 등 공유요망.

□ 기타 안건

1. 새내기 새로배움터

2. 전체학생대표자 & 새터기획단 대상 성평등·인권 교육 인원 파악

-일시/장소: 2018년 2월 21일 15시 / 310관 B601호.

: 참여자 인원 파악 완료된 단과대학, 2월 12일 월요일까지 명단 송부 요망.

3. 동아리연합회 발의 - 동아리 홍보책자 관련

: 동아리연합회에서 중앙동아리 홍보 책자를 제작. 각 단과대학 신입생 입학식에서 배포할 예정.

: 새터 참여 대학 등을 고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정 조정 예정.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9차 정기회의: 2월 19일(월) 오후 3시